대중 극락왕생 염원하며 그린 '극락세계'

조이락 초대전 '극락세계'
무우수갤러리 4월 14~30일

아미타내영도 등 15점 전시
모친 극락왕생 염원도 담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고려불화의 맥을 잇고 있는 조이락 작가가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무우수갤러리에서 초대전 '극락왕생'을 개최한다.

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아미타내영도, 관세음보살도, 만오천불도, 비천도 등 1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아미타내영도'는 가장 최근작으로, 203cm에 이르는 원작을 줄이고 재구성한 작품이다. 아미타여래가 왕생자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또한 풍만한 몸체와 느슨하게 둘러져 있는 옷 주름의 묘사도 돋보인다.

아미타여래의 발치에는 연꽃에서 왕생한 아름다운 여인이 푸른 연꽃을 바치고 있다. 왕생자는 아미타여래의 손에서 뿜어내는 형형색색의 빛을 받으며 자석에 이끌리듯 아미타여래를 향한다.

'아미타삼존도'는 〈관무량수경〉의 내용에 따라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음보살을, 오른쪽에는 세지보살을 그린 것이다. 채색은 주, 녹청, 군청을 주조색으로 했고, 금니로 마무리를 하여 전통적인 고려불화기법을 따르고 있다. 조 작가는 "양대 보살의 이지적이며 살아있는 듯한 눈매와 단아한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화엄경〉에서 선재동자를 맞이하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기본으로 한 '수월관음도'는 중생을 구제하고 깨우침을 주는 자비의 보살이다. 관음보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있는 베일의 부드러운 감촉이 화면 밖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 화려하고 뛰어난 장식성을 보고 있으면 수월관음도가 고려불화 중 왜 가장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아미타삼존도, 비단에 석채, 110X74, 2006

'모자관음도'는 조 작가가 창작한 수월관음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대중을 위로하고, 아동 관련 범죄와 저출산 문제 등 사회문제를 생각하며 관세음보살의 자애와 지혜 그리고 법성을 바라는 마음의 작품이다.

'꽃이 피다'와 '진달래 꽃비 내리다'의 바탕은 '만오천불도'이다. 조 작가가 작업실에서 백호와 육계에 수없이 많은 흰점과 붉은 점을 찍던 중, 밖을 내다보니 벚꽃 잎이 후두두 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화실 앞 보도블록 위에 떨어진 꽃잎이 마치 점점이 그려진 부처님의 모습 같아 당시의 감동적인 모습을 구현한 작품이다.

'황금새'와 '황금꽃'은 여러 종류의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금, 은, 유리 등 찬란한 보석으로 장식된 나무와 황금 모래가 깔린 연못을 묘사한 〈아미타경〉의 극락세계를 연상케 한다.

한편 이번 전시의 주제인 '극락왕생'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조 작가의 어머니가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작가의 염원이 담겨 있다. 조 작가는 작가노트 말미에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라고 적고 있다. 서쪽으로 십만억불토를 지나서야 있는 극락세계는 신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고 선업을 쌓아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에 조 작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아미타불의 정토인 극락은 안양, 안락, 연화장세계라고도 한다. 극락은 즐거움만 있는 곳으로,

그 즐거움은 아미타불의 본원이 성취된 깨달음의 즐거움을 말한다. 〈아미타경〉에 의하면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이 머물며 설법하는 곳으로 서방으로 십만억 불국토를 지나야 있다. 이 같은 공간적 거리와 죽어서 간다는 시간적 거리는 물질적 낙토관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중생구제'의 사상이 담겨 있다.

조 작가는 "관람자도 끝없는 목숨과 끝없는 빛의 의미가 있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러보길 바란다"며 "지금은 떠나가고 없는 사랑하는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해 보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남겨진 이들의 현세의 삶이 평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이락 작가는 용인대학교 대학원에서 고려불화와 유물재현을 공부했으며 모사와 보존과학 부문 문화재수리 기능자이다. 조 작가는 서양화가로 활동하던 중 우연히 본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에 매료돼 20여 년 동안 불화를 그리고 있다. 10여 회의 개인전과 30여 회의 초대전 및 유물모사 작업에 동참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청, 대구 부인사 등에서 조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신예지 불교미술 작가 첫 번째 개인전 '다다를'

흥천사 4월 15일~5월 28일


신예지 作, 반야를 찾아

신예지 작가가 4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울 흥천사(주지 각밀) 전법회관 2층 북카페 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 '다다를'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흥천사에서 젊은 불교미술 작가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로 신예지 작가가 선정됐다.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작가는 불화가 지닌 예술적 가치와 종교적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본인의 작품에 담고 있다. 특히 전통 도상을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채색의 변주를 주고 섬세한 문양을 가미하여 새로운 미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반야를 찾아'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흥천사의 삼신불 괘불도 하단부를 모본으로 하여 문수동자와 보현동자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화면 전반을 저채도로 하여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함과 동시에 화려한 금문양과 금선을 더해 주목도를 높인 작품이다.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감각으로 새롭게 변용했다는 점에서 작가의 깊은 성찰을 엿볼 수 있다.

'상수제자1, 2'는 수덕사 노사나불 괘불도 상단부의 십대제자를 두 개의 화폭에 대칭으로 나누어 담은 작품이다. 수많은 존상들 가운데 제자를 주목한 데에서 불교미술을 대하는 작가의 마음과 수행의 지를 느낄 수 있다. 원본의 오색찬란한 빛과 달리, 담백한 채색과 운문으로 배경을 처리하여 십대제자를 명료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제자들의 생동감 있는 표정, 자유로운 자세가 조화를 이루어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섬세한 표현력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주요 작품들 외에도, 번뇌를 떨치고 구제받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보리심', '처염상정', '수월관음도', '갈애' 등의 작품도 선보인다. 시선을 사로잡는 꽃장식과 영락장식 등의 화려한 표현과 작가의 불심을 볼 수 있다.

전시문의 (02)929-6611. 박재완 기자

특별전 '세계유산 선암사'
국립순천대博 10월 27일까지

세계유산 선암사 문화재 첫 산문 밖 나들이


선각국사 도선 진영

선각국사 도선 진영 등 127점 선보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암사의 유물이 처음으로 외부에서 전시된다.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이 10월 27일까지 특별전 '세계유산 선암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선암사 유물은 '선각국사 도선 진영', '대각국사 의천 진영', '33조사도', '선암사 동종'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등 보물 5점과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은입사향로', '선암사중수비(탁본)' 등 전남유형문화재 3점 등 모두 127점이다.

이번 특별전은 선암사 유물의 최초 속세 나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암사가 창건된 이래로 선암사 유물이 외부에서 공개되는 첫 번째 전시인 것이다.

이번 전시는 순천을 대표하는 고찰 중 한 곳인 선암사의 유물을 지역민에게 선보이는 한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을 위해 순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세계유산 선암사의 불교문화재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일반인들이 쉽게 관람할 수 없었던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암사 불교문화재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됐다.

순천 선암사는 백제 성왕 5년(527년)에 현재의 비로암지에 아도화상이 창건했다. 사찰명은 해천사였다. 도선국사가 현 가람 위치에 중창하고, 의천 대각국사가 대각암에 주석하면서 선암사를 중창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호남을 대표하는 4대 강백을 배출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강성호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장은 "세계유산 선암사는 간화선의 수행정신과 경전의 강학전통 및 염불수행의 승풍을 고고하게 지켜온 청정도량이자 천년고찰로서 많은 불교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선암사를 대표하는 보물들을 특별히 엄선하여 대중이 선암사의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